



**남원 운봉읍, 원스톱 연중 건강 돌봄 실시**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1일 1가구 소동행정 일환으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병(의)원 서비스 동행까지 원스톱(one-stop) 연중 건강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운봉읍 서남마을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지난해 3월 찾아가는 1일 1가구 운봉읍방문에서 심각한 림프부종으로 투병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 후 시술을 받게 하였으며, 현재 읍 맞춤형 복지팀이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해당 어르신에 대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병원 동행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운봉읍 작은 목욕탕 목욕 서비스, 운봉읍 휠체어 무료 대여, 가사 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향교동장, 어르신 가정 방문**

남원시 향교동의 권혜정 동장은 명절에 자녀가 방문 후 떠난 빈자리를 외로울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1일 1가구 소동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은 "바쁘고 멀리 살아 자주 보지 못한 자녀와 손녀 손자들과 오랜시간 함께하여 즐거웠지만 연휴가 끝나니 북적북적했던 곳이 다시 조용해져 쓸쓸했는데, 이렇게 등장남에게서 방문해 주셔서 밭이 되어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권혜정 향교동장은 "딸, 며느리라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되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이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책축제 달빛소풍',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등서 개최**

'정읍시가 제5회 책축제 달빛소풍'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읍시립중앙도서관과 야외 독서공원에서 개최한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5g, 가깝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작가와의 만남, 출판기념식, 공연, 작품전시 및 체험 등이 준비됐고,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백운유 작가, 임경선 작가, 요조 작가가 참여해 '글쓰기의 재미와 의미'를 주제로 시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 대우루컴즈 1천만원 상당 액정 모니터 기탁**

지난 20일 (주)대우루컴즈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액정모니터 50대(1천만 원 상당)를 무주군에 기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대환 대표는 "IT전문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모니터를 기탁하게 됐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이 돼서 작게는 종사자들이 일하는 데 보탬이 되고 크게는 무주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이 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용인시(본사)에 위치한 (주)대우루컴즈는 1984년에 창립된 IT전문 기업으로 70여 명의 임직원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이익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

팜조아 농업회사법인, 전북자치도에 3200만원 상당 소불고기세트 성품 지원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황은경)이 따뜻한 나눔으로 전북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일 (주)팜조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3,200만원 상당의 소불고기 세트 4,000개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황은경 (주)팜조아 대표이사,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팜조아는 2016년 전북 익산에 과채 가공품(IQF) 식품 제조공장을 설립한 이후, 냉동 채소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설립된 2016년부터

9년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해 오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나눔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는 (주)팜조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에서도 취약계층과 도민 모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문화장 이상훈 공익장 강신철 산업근로장 오연택 애향장 안병욱 효행장 김성실 체육장 정교관

**'지역사회 발전 공로 인정' ...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진안군은 20일 지역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화장 이상훈씨(59), 공익장 강신철씨(64), 산업근로장 오연택씨(60), 애향장 안병욱씨(84), 효행장 김성실씨(52), 체육장 정교관씨(76) 등 6명이다.

문화장 이상훈씨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안문화원 이사 및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여러 단체와 연대해 진안 청소년 문화축제, 진안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벽화그리기, 진안 청소년 독서교실, 진안 어린이날 큰잔치를 추진하는 등 진안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안 향토사 교육·연구에 힘썼다.

공익장 강신철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진안군 산림과 산림 일자리 사업에 몸담으면서 풍부한 산림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섰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의 위험목 피해목 등을 사전 제거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산림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후 발생한 산림사업 부산물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다.

산업근로장 오연택씨는 표고, 상추, 부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 발굴과 농업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

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들의 신망이 두둑하다.

애향장 안병욱씨는 재경추천회 창립과 재경군민회를 조직하고, 축제, 군민의 날, 민민의 날 행사 등에 매년 참여하고 후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 재경추천회 주경장학회 설립과 이사장을 역임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썼다. 지난 2019년과 2023년에는 독일 교포 및 현지교수를 초청하여 진안홍삼축제와 용담향교 문화 체험을 진행해 고향 진안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효행장 김성실씨는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고향 진안에 내려와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부모의 임원비, 치료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아 하며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올해부터는 원가막마를 이장을 맡아 본인생업, 부모봉양 등으로 바쁘게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

체육장 정교관씨는 정천면체육회 회장, 진안군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 체육발전과 체육인 복지향상에 힘썼다. 이밖에 진안군 산악연맹 회장, 정천면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섰다.

군은 지난 8월 한 달 간 접수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직조사위원들의 조사를 마치고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6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일 진안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62주년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고창군, '2024년 제40회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 5명 선정**

고창군이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군민을 발굴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제40회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장 정종만 문화체육장 김영남 산업근로장 김기주 애향장 이인재 효행장 오애숙

공익장에 정종만(63, 고창군장애인복지관장), 문화체육장 김영남(66, 자연에 대표), 산업근로장 김기주(67, 무주대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애향장 이인재(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효행장 오애숙(73, 가사)씨가 각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1985년에 처음 시작된 군민의 장은 지난해까지 총 39회에 걸쳐 171명의 영예로운 수상자를 배출했다.

공익장에 선정된 정종만씨는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장으로서 장애인복지 발전과 다양한 복지활동으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복지의 내실을 다지는 데 공헌했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김영남씨는 자연에 천연염색문화공간 대표로서 천연염색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천연염색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천연염색 교육 등 후학양성에

도 열정을 쏟았고 애향심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군민을 발굴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제40회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

김기주씨는 무주대산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유통 활성화와 고창의 대표 농특산물인 수박과 멜론의 명품 브랜드 육성에 기여하였다.

애향장에 선정된 이인재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으로서 투철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재정 건정성과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효행장에 선정된 오애숙씨는 101세의 시어머니와 94세의 친정어머니를 50여년 가까이 모시며 참다운 효부의 모습을 보여줘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귀감이 되었다.

고창군은 오는 10월 11일 고창군 군민의 날에 군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청렴·소통 한마당**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소통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업무 외의 환경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 내용은 청렴 다짐식 및 단체 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청렴 다짐식에 이어 첫 번째 종목인 피구에서는 신규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경기로 서로의 협력과 팀워크를 확인했다. 이어진 배구 경기에서는 경기 중의 웃음소리와 응원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각 종목은 직원들의 열된 참여와 협력 속에서 진행됐다.

후영곤 교육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청렴·소통 한마당 축제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서로의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명철 마니플레이츠 대표, 산동면에 물품 기부**

남원시 산동면 관계자는 관내 등 구미를 출신 재경 산동면 향우회 이명철 회장(마니플레이츠 대표)이 지난 12일 산동면 주민들을 위한 약 445만원 상당의 속옷 및 블라우스 60벌과 침장복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명철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능한 많은 고향 주민분들이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추가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지양근 산동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향 이웃들을 위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시니어클럽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순창군이 20일 노인회관에서 시니어클럽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성 제고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순창군수의 역점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은 현재 9월 기준으로 2,9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위기상황발생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전문 강사진이 현장 중심의 실습 위주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특히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제 상황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노인 관련 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읍 주민 김인숙 씨, 장학금 30만 원 기탁**

무주 무주읍 주민 김인숙 씨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천마 효택을 만들어 관 수익금 중 일부(30만원)를 (재)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기탁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김인숙 씨는 "무주 반딧불시절에서 효택을 만들어 판 지 30년,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한 지는 10년째"라며 "효택은 자식들을 키운 힘이기도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무주 아이들의 꿈을 뒷받침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김 씨는 무주 반딧불시절에서 효택을 구우며 무주시장 대표 떡거리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반딧불축제 간식 부스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걸음을 함께해 오고 있다.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용 이사장(무주군수)은 "폭염 속 뜨거운 불 앞에서 함께해 번 돈을 이렇게 선뜻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